10.15686/fkl.2026..68.292

노천명 후기 문학에 나타나는 자기-정의의 드라마

-감옥 체험과 권력에의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장서란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FOUR 학술연구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주체’를 생산하는 권력과 감옥의 체험성
3 ‘주체화’된 자아 증명의 반복과 강화
4 이름 폐기의 욕망과 위협적 권위의 균열
5 나가며

국문초록

본고는 노천명의 감옥 시편과 출소 이후 텍스트를 대상으로 감옥 체험을 통해 구성된 체험성이 시인의 자아 형성에 있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푸코의 권력·주체 이론 및 고프만의 논의를 통해 분석한다.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던 남한 정부에 의해 용공 부역 혐의로 수감된 노천명에게 감옥은 상징 질서의 욕망을 체화하는 '주체'를 생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감옥 시편에서 드러나는 격리, 자아 오염, 이름의 박탈이라는 일련의 메커니즘은 기존 자아를 위협하고 죄수로서의 자아를 수용하는 서사적 흐름을 형성한다.

출소 이후 작품에서는 반공·애국 이데올로기를 통해 강화된 '주체화'된 자아가 나타나는 한편, '이름'을 폐기하려는 욕망과 지속되는 억압의 이미지는 '주체화'의 균열을 드러낸다. 이처럼 '주체화'된 자아와 균열의 지점이 공존하는 양상은 노천명의 텍스트를 자기-정의의 드라마로 읽게 하며, 감옥이라는 공간이 억압과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권력의 장소임을 보여준다.

국문핵심어: 노천명, 감옥, 수용소, 감옥 문학, 권력, 주체화, 체험성, 미셸 푸코, 어빙 고프만, 자기-정의의 드라마

1 들어가며

노천명은 신문학사 초창기에 있어 본격시인으로 다루어지는 여성 시인[1]이며, 그의 시에 대한 연구는 토속적 고유어의 사용 및 시적 체험의 다양성과 독자성 확보[2]에서부터 시적 대상의 상징성을 통한 정신분석학적 접근[3], 페미니즘[4] 및 해방과 한국전쟁기를 통한 인식 분석[5] 등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의 시에 대한 논의는 친일시 연구를 제외한다면 초기 시집인 『산호림』과 『창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6]을 띤다. 이는 고독과 향수, 절제[7]라는 노천명의 대표적

1 김재홍, 「실낙원의 시 또는 모순의 시 -노천명」, 김삼주 편, 『노천명』, 문학세계사, 1997, 279쪽.

인 시적 정서에 주된 초점을 맞추는 연구 경향뿐 아니라, 해방 후 용공 부역 혐의로 수감된 이후 발표된 시집들-『별을 쳐다보며』와 유고 시집 『사슴의 노래』에 대한 기존 논의의 부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정희는 『별을 쳐다보며』에 대하여 "언어의 자각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설명적이며 직감적인 서술에 그치고 있"으며 "시어도 초기 『산호림』, 『창변』 시대의 아름다운 서정과 향토적인 시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초기의 서정감각이라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8]고 평가한다. 신경림 또한 후기 애국시를 통해 "식민지 지식 여성의 한 전형"[9]을 보게 된다고 지적하며, 이를 친일 및 부역과 동궤에 두고 "하나같이 공소하고 피상적"[10]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초기 시편에서의 서정성을 기준으로 삼거나 시인에 대한 평가에 집중함으로써 감옥 체험이라는 주요 사건과 이에 전제된 권력의 작용과 이에 대한 대응 양상을 심도 있게 살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노천명의 감옥 시편에 관한 연구는 감옥이 지니는 상징적 장소성[11]에 집중하거나 초기시의 소극적 현실 대응 의식이 적극적으로 확장되는 이행 과정을 보여준다는 논의[12], 수감 시기의 외부 상황과 대응되는 변화 양상에 주목한 연

---

2 이숭원, 『노천명』,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157-159쪽.

3 박경자, 「노천명 시에 나타난 사슴, 고독, 장미의 상징성」, 『한국어교육연구』 3호,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5.

4 임명숙, 『노천명 시와 페미니즘』, 한국학술정보, 2005.

5 김진희, 「모윤숙과 노천명 시에 나타난 '해방'과 '전쟁': 해방이후부터 전쟁까지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8호, 한국시학회, 2010.

6 "노천명의 문학적 성과는 초기시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연구자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곽효환, 「노천명의 자의식과 친일·애국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4호, 한국근대문학회, 2011, 32쪽.

7 "감정의 절제라는 미덕을 초기시의 단계에서부터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시의식이 성숙해 가면서 한국시에서 보기 드문 절제의 미학을 수립해 가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이숭원, 앞의 책, 160쪽.

8 문정희, 「노천명론」, 김삼주 편, 앞의 책, 320-321쪽.

9 신경림,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사슴은』, 지문사, 1981, 324쪽.

10 위의 책, 330쪽.

11 김민숙, 「노천명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2011, 45-46쪽.

12 손미영, 「노천명 시 연구 -시집《별을 쳐다보며》를 중심으로-」, 『성신어문학』 6호, 돈암어

구[13] 및 생명의 원초적 상상력을 통한 죄의식과 죽음의식의 극복[14]이라는 논의가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고찰은 감옥 체험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진전을 보이나 감옥을 통해 작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조명하지 않으며, 감옥 체험을 주체성 형성의 조건이 아니라 기존 주체가 경험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감옥 체험을 통해 구성된 체험성이 출소 이후 텍스트에서 어떻게 지속되고 변형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앞선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노천명의 감옥 시편에 나타나는 권력의 작용을 푸코와 고프만의 논의를 통하여 논하고, 감옥 체험을 통하여 구성된 체험성이 출소 이후 텍스트인 시집 『별을 쳐다보며』, 『사슴의 노래』, 수필집 『나의 생활백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핌으로써 권력과 주체 형성 사이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읽으려 한다.

푸코는 특정한 형태로 사람을 길들이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끔 만드는 권력의 행사 방식을 분석하며, 그 결과 개개인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체'로 만들어지는지를 논한다.[15] 즉 개인을 '주체'로 만드는 것이 권력의 형식[16]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감옥은 범죄자를 비정상적 타자로 정의하여 사회에서 격리시킨 후 교정을 통하여 정상적인 인간, '주체'로 만드는 대표적 공간이다. 근대 감옥이 단순히 구금 기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율 유지와 교화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시설임을 표방[17]하는 것도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생산망""[18]으로서의 권력의 이중적 특성, 즉 억압과 생산에서 비롯된다.

문학회, 1994, 171-173쪽 참조.

13 유태윤, 「노천명의 감옥시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74집, 한국현대문학회, 2024.

14 박연희, 「전선(戰線)의 여성 시인-'적치 하' 모윤숙과 노천명의 원체험과 시적 재현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8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3, 121쪽.

15 이진경, 『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2, 135쪽.

16 드레피스·라비노우, 서우석 역, 『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나남, 1989, 302쪽.

17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 근대감옥의 성립과 변모, 그리고 현대교정』, 박영사, 2006, 181쪽.

18 M.Foucault, *Power/Knowled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Pantheon Books, 1980, p.11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던 남한 정부에 의하여 용공 부역 혐의로 수감된 노천명에게 감옥이란 반공·애국이라는 상징 질서의 욕망을 체화하는 주체로 만드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옥의 메커니즘은 『별을 쳐다보며』중 「영어囹圄에서」에 수록된 감옥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며, 이를 통해 '주체화'된 자아의 모습은 출소 이후 출간한 『별을 쳐다보며』와 유고시집 『사슴의 노래』, 수필집 『나의 생활백서』에 수록된 애국시 및 반공 정서를 통해 구현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별을 쳐다보며』와 『사슴의 노래』에서의 시적 화자는 '이름'을 폐기하려는 욕망 및 출소 이후에도 지속되는 억압의 이미지와 자유에 대한 갈망을 드러냄으로써 완전한 '주체화'에 포섭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박탈된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하려는 시적 화자의 욕망은 상징 질서의 위협적 권위를 부각하고 상징 질서의 균열점과 정부가 내건 "자유"의 공허함을 드러낸다.

본고는 감옥 체험에 주목하여 감옥 시편에서 나타나는 감옥의 체험성이 후기 텍스트에서 드러나는 자아 형성의 기반으로 작동함을 밝히고자 한다. 반공·애국으로 나타나는 '주체화'된 자아, 이름을 폐기하고 권력의 억압을 시사함으로써 '주체화'의 균열을 드러내는 자아의 양상은 노천명의 자기-정의의 드라마[19]로 읽을 수 있다. 즉 감옥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문학의 관계를 바탕으로 억압과 생산이라는 권력의 이중적 양상을 다각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2 '주체'를 생산하는 권력과 감옥의 체험성

19 "자서전적 서사의 실용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자서전을 문학 장르라기보다는 "인지와 인식의 방식"으로 간주하는 접근법을 야기했다. 그들은 누군가의 삶의 쓰기(자서전적 글쓰기)를 정체감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과정을 재현하는 것으로, "이미 완성된 자아에 대한 수동적이고, 투명한 기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정의의 드라마의 필수적인 단계"로 본다." Martin Loeschnigg, "Postclassical Narratology and the Theory of Autobiography", Jan Alber, Monika Fludernik (eds.), *Postclassical Narratology: Approaches and Analyse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0, p.261.

노천명은 한국전쟁 시기 피난하지 못하고 서울에 남아 있다가 공산 치하에서 문학가동맹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9.28 서울 수복 이후 반역문화인으로 몰려 20년 형을 선고[20]받는다. 심한 고문과 협박에 시달리던 노천명은 이후 이헌구, 김광섭 등 문인들의 석방 운동으로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는데[21], 이 시기 감옥 체험을 형상화한 시는 출소 이후 발표한 시집『별을 쳐다보며』의「영어囹圄에서」라는 장으로 묶여 제시된다.

푸코는 신체에 가해지는 권력 작용이 '유용하고 순종하는 신체'를 산출하며, 이는 근대적 훈육과 규율화의 기술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러한 권력이 구체화되는 대표적인 근대의 장소는 감옥이며, 감옥은 철저한 규율과 징계의 기구[22]이다. 고프만은 외부와의 사회적 접촉과 이탈을 가로막고 생활의 경계를 붕괴하고 통합함으로써 특수한 사회적 목표를 가진 통제 집단으로서의 총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23]에 대하여 논하며, 감옥의 경우 격리된 사람들의 복지는 선결문제

---

20 김윤경은 당시 서울에 남아 있던 유명 인사들 중 부역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불문에 부쳐졌음에도 노천명과 조명희의 경우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일간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공개 재판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유명 여성 지식인도 부역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경고로서의 일벌백계의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김윤경,「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군법회의의 문제점 -노천명·조경희·이인수의 판결을 중심으로」,『서강인문논총』57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동일한 상황의 여타 지식인들과 달리 노천명과 조경희 두 사람에게 20년 형을 선고하는 것, 이후 2개월 및 6개월 만에 이들을 석방하는 권력의 작용 양상은 그가 말하는 것이 곧 진리로 작동하는 주인 담론을 보여준다.

21 이어령,『한국작가 전기 연구 상』, 동화출판사, 1975, 142쪽 참조.

22 "감옥은 개인의 모든 측면, 곧 신체의 단련, 노동능력, 일상적 행동, 도덕적 태도, 적응력 등을 떠맡아야 한다. 그러므로 감옥은 어느 정도의 전문화를 예외 없이 함축하는 학교, 공장, 군대보다 훨씬 더 '범규율적'이다. 게다가 감옥은 외부도 없고, 빈틈도 없고, 자체의 임무가 전적으로 완결될 때를 제외하고는 기능이 중단될 수 없으며, 개인에 대한 영향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끊임없는 규율이다. 결국 감옥은 수감자에 대해 거의 전적인 규율을 행사하고, 억압과 형벌의 내적 구조를 갖는다. 그것은 전제적인 규율이다. **감옥은 다른 규율의 장치들에서 발견되는 모든 절차를 매우 강도가 높은 단계로 올려놓은 것이다. 감옥은 타락한 개인에게 새로운 모습을 강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여야 하며, 따라서 감옥의 작용 방식은 완전한 교육의 강제이다.**" 미셸 푸코, 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 2003, 358쪽, 강조는 인용자.

23 어빙 고프만, 심보선 역,『수용소』, 문학과지성사, 2018, 16-19쪽 참조.

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감옥이란 수감자를 교정하여 순종하는 신체, '주체'로 만드는 사회적 목표를 위하여 움직이는 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천명의 경우 용공 부역 혐의로 수감되었으므로 이 경우 감옥의 목표는 용공 부역자를 반공·애국을 체화하는 '주체'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한 감옥의 메커니즘은 『별을 쳐다보며』에서 체험성[24]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내가 저승엘 왔나 보다/아무래도 여기가 저승인가 보다/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끊어져/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이 없구나/그들은 확실히 딴 세상에 산다
>
> 「저승인가 보다」 전문 (『별을 쳐다보며』)[25]

감옥이라는 총체적 기관이 재소자와 바깥 사이에 세우는 장벽은 자아의 축소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장소이다. 대부분의 경우 총체적 기관은 입수 직후 면회와 외부 체류 같은 특혜를 완전히 금지함으로써 재소자를 과거의 역할과 깊이 단절시키고 현재의 역할 박탈을 수용하게 만든다.[26] 위 시에서 시적 화자는 "여기", 자신이 있는 곳을 "저승"으로 인식한다. "내가 저승엘 왔나 보다/아무래도 여기가 저승인가 보다"라는 1행과 2행에서의 반복된 서술은 시적 화자가 겪는 혼란을 드러내며, 자신이 속한 공간을 "저승", 죽음의 공간으로 서술함으로써 상황의

---

24 "체험성experientiality은 인간 의식에 있어서 반영된 것으로서의 경험의 하나의 개인화된 표현을 나타낸다. 경험의 연속성과 자서전 이론에 있어서 강조되는 서술은 플루더니크의 서사적 모델의 중심이 된다. (…) 그녀[플루더니크]는 체험성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으로 "인간(의인화된) 경험자"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체험성에서의 서사성을 근거로 삼는다. 인간의 의식과 그것의 재현represntation은 그녀의 모델에서 가장 중요하다." Jan Alber, Monika Fludernik (eds.), op.cit., p.259.
노천명의 감옥 시편은 감옥에서의 경험을 재생re-living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며, 감옥 시편 및 이후의 시편들과 수필에서 나타나는 화자의 정체성은 감옥에서의 체험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양상을 보인다.

25 노천명, 『노천명 전집 1: 사슴』, 솔, 1997, 148쪽.

26 어빙 고프만, 앞의 책, 28-29쪽 참조.

절박함과 부정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저승으로 나타나는 감옥과 이승으로 암시되는 "바깥 세상"에서 시적 화자를 찾는 이는 없다는 서술과 더불어 홀로인 "나"와 여럿인 "그들"의 구도는 고립과 고독을 형상화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자아의 축소를 암시한다.

총체적 기관에 속한 재소자들은 안정적인 사회적 질서의 박탈로 인하여 자아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비하, 모멸, 조롱, 모독을 받는다. 이처럼 재소자들은 존재 자체를 정리당하고, 사물로 규격화되며 약호화된다. 기존의 자아는 부정되며, 이는 총체적 기관의 목적, 감옥의 경우에는 순종하는 신체로서의 '주체화'를 위한 것이다. 자아에의 모욕 중 하나는 오염에 대한 것인데, 바깥 사회의 개인은 자아감과 관련된 대상들-몸, 즉각적 행동, 생각, 몇몇 소유물-이 낯선 오염 물질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지만 총체적 기관에서 자아의 영토는 침범[27]된다. 이러한 양상은 「지옥」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 밖에서 열어주어야만 나갈 수가 있다/누가 죽어 넘어져도 소용없다//
> 온갖 것은 해주기만 바라야 하는 곳/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하나에서 열
> 까지/후유-/여기가 지옥이로구나/주먹밥 한 개 먹고 나면 다음은 이 사
> 냥/머리를 풀어헤치고 누운 할머니/삼경(三更)에 변기 위에서 미치는 젊
> 은 여인/발진티푸스 환자//파충류들 모양 마룻바닥에 가 늘어졌다/이
> 틈에 가 끼여서 나는/하루하루 더 쭈글쭈글해가는 내 손등을 들여다본다
>
> 「지옥」 전문 (『별을 쳐다보며』)[28]

이 시에서 제시되는 감옥의 풍경은 "지옥"으로 "저승"보다 심화된 모습을 보인다.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며, 오로지 "밖"에서 열어주어야만 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서술은 "밖"의 힘을 극대화하고 그에 비례하여 "안"의 힘을 최소화한다. 이는 나아가 "안"에 속한 시적 화자의 자아 축소를 시사한다.

---

27 위의 책, 28-39쪽 참조.

28 노천명, 앞의 책, 143쪽.

2연에서 제시되는 “안”의 특성은 “하나에서 열까지” 온갖 것을 해야 하는 공간으로, 감옥 안에서의 고된 노동[29]이 노동 일과뿐 아니라 생활 전면에 속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헐한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이 사냥”을 해야 하는데, 이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풀어헤치고 누운 할머니”를 위한 것으로 감옥 안에서의 시적 화자의 낮은 위치를 가늠케 한다.

타인의 머리를 만져 벌레를 잡아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변기 위에서 미치는 젊은 여인”은 감옥의 극한 상황뿐 아니라 광증으로 인해 위협적인 타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자아에 오염으로 작동한다. 미친 여인이 “변기 위에” 있다는 점 또한 변기와의 인접성을 통하여 여인의 오염성을 환유적으로 나타내는 동시에 집단 배변 행위를 함으로써 오염[30]되는 상황을 드러낸다. 다음 행에서 제시되는 “발진티푸스 환자”는 앞선 “이 사냥”과 연결되는데, 발진티푸스는 불량한 사회·경제 환경에서 매개충인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병으로 ‘감옥열’[31]로도 불리기 때문이다.

외부의 오염으로 인해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은 수면 시에도 나타나는데, 생활과 수면의 장소가 구분되지 않는 감옥 안에서 죄수들은 “마룻바닥에 가 늘어”지고, 시적 화자는 “이 틈에 가 끼여” 잠들어야 한다. 앞서 제시된 오염들 사이에 “끼여”야 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오염과의 접촉이자 자아의 영토를 침범당하는 것[32]이다. 이러한 상황은 “하루하루 더 쭈글쭈글해가는 내 손등”이라는 신체의 노화, 죽음의 은유를 낳는다. 이러한 감옥의 메커니즘을 통해 시적 화자는 점차

29 “수용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규정되었다. (…) 이러한 개인은 자신을 타락하게 만든 사회에서 격리되어 도덕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다.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노동과 이데올로기 주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설에 수용되고 사회에서 격리된 개인은 종교 등의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을 통해 자신의 죄와 타락을 뉘우치고, 강제 노동을 통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에 필요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다.” 최정기, 『감금의 정치』, 책세상, 2005, 43쪽.

30 “오염적 노출의 가장 명확한 사례는 직접적으로 신체적인 종류의 것이다. (…) 중국 정치범 수용소의 경우, 재소자는 자신의 오물을 직접 치워야 하며, 혹은 집단으로 배변 행위를 해야 한다.” 어빙 고프만, 앞의 책, 41쪽.

31 「발진티푸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1619, 2026.07.11.

감옥 안에서의 역할을 체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 자신 없는 훈장이 내게 채워졌다/어울리지 않는 표창이다/오등(五等) 콩밥과 눈물을 함께 씹어 넘기며/밤이면 다리 팔 떼어놓고 싶게/좁은 잠자리에 주리 틀리우고/날이 밝으면 날이 날마다 걸어보는 소망/이런 하루하루가 내 피를 족족 말리운다
>
> 「누가 알아주는 투사냐」 부분 (『별을 쳐다보며』)[33]

위 시에서 시적 화자는 현실에 대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자신 없는 훈장"과 "어울리지 않는 표창"은 죄인으로 낙인찍힌 자신의 상황을 수인 번호를 통해 반어적으로 은유하며, 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동시에 드러낸다. "오등 콩밥"을 "눈물"과 함께 "씹어 넘"긴다는[34] 서술은 부서지는 자아를 나타내며, 잠을 자는 것을 "주리 틀리"운다는 서술은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자아의 오염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 시적 화자는 "날이 날마다 걸어보는 소망"-출감을 소망하지만 이는 번번이 좌절되며, 반복되는 좌절과 감옥의 총체적 구조는 "피를 족족 말"리면서 자아를 위협하는데, 이는 결국 시적 화자의 굴복을 얻어냄으로써 현재의 역할 박탈을 받아들이게 한다.

> 비둘기가 아니라도/콩이 좋아/꼭 찍은 오등(五等) 콩밥에 노오라니 박힌 걸/빠끔빠끔 빼먹으면/보리밥 덩어리가 보기 좋게 얽는다//이 안의 콩 한 알은 밖의 황소가 한 마리란다/소금을 설탕인 양 맛있게 먹는 족속들이 있다.

---

32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 사람일 때가 있다. (…) 연령, 민족, 인종을 뒤섞는 교도소와 정신병원의 관행으로 인해 재소자는 원치 않는 재소자들과 접촉하게 되며 이는 오염의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어빙 고프만, 앞의 책, 44-46쪽.

33 노천명, 앞의 책, 146쪽.

34 "재소자들은 (…) 원하든 원치 않든 입에 맞지 않더라도 음식을 먹어야 한다. 만약 재소자가 식사를 거부하면 "강제 식사"를 통해서 그의 내장은 불가피하게 오염될 수 있다." 어빙 고프만, 앞의 책, 44쪽.

「콩 한 알은 황소가 한 마리」 전문 (『별을 쳐다보며』)[35]

"오등 콩밥"은 「누가 알아주는 투사냐」에서도 등장하는 소재이나, 「콩 한 알은 황소가 한 마리」에서 이를 대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눈물과 함께 씹어 넘기"던 콩밥을 "콩이 좋아", "보기 좋게 얽는" "보리밥 덩어리"로 서술함은 죄수의 식사, 그중에서도 최하급의 식사[36]인 "오등 콩밥"이 시적 화자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는 식사가 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는 시적 화자가 죄수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였음을 암시[37]한다.

다음 연에서는 안/밖의 대비적 구도가 제시되는데, "이 안의 콩 한 알은 밖의 황소가 한 마리"라는 서술은 "안"의 극한 상황을 드러내는 동시에 "안"과 "밖"의 위계를 드러낸다. 나아가 "소금을 설탕인 양 맛있게 먹는 족속들이 있다"는 것은 "안"의 "족속들", 재소자들에게는 짠 소금이 단 설탕으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 즉 "안"의 질서는 "밖"과 역전되며, "오등 콩밥"을 맛있게 먹는 시적 화자 또한 "안"의 족속임을 나타낸다.

이처럼 시적 화자는 감옥 체험을 통하여 외부 세계와의 단절, 기존 자아에의 부정, 모욕, 오염 등을 통하여 자아의 영토를 침범당하며 감옥이 제공하는 자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서술한다. 시적 화자는 죄수로서의 자아를 수납하게 되는데, 이는 감옥의 목표인 반공·애국이라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체화한 '주체'의 전제로 작동한다.

3 '주체화'된 자아 증명의 반복과 강화

35 노천명, 앞의 책, 154쪽.

36 법무부, 「교정 61주년 변천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6.10.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145585, 2026.07.11.

37 "마침내, 감금의 비인간화에 처하게 된 후, 수감자들은 그들 자신을 낙인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감옥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개인이 독특한 위험, 굴욕, 가치, 규칙과 규범이 있는 세계에 노출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다." Andrew Sobanet, *Jail Sentences: representating prison in twentieth-century french fiction*, University of Nebraska, 2008, pp.9-10.

수감자란 스토리텔러이며, 감옥 문학은 적대적이고 낯선 환경에 대하여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드러낸다[38]고 할 때, 2장에서 제시된 감옥 시편에서 시적 화자는 사회화의 격리, 모욕 및 감시, 오염을 통하여 죄수로서의 자아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죄인으로 낙인찍힌 현재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감옥의 목적이자 권력의 욕망인 반공·애국의 '주체'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옥 시편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데, 이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거부 및 용공에 대한 부인으로 나타난다.

> 높은 담장이 가로막고/무거운 철문이 나를 넣고 잠궜어도//마음의 창문은 열려 있어/나는 이 누더기 속에 있지 않다/이 붉은 계열 속에 있지 않다//마음은 언제나 푸른 하늘을-/대한의 푸른 하늘을-
>
> 「마음은 푸른 하늘을」 전문 (『별을 쳐다보며』)[39]

「마음은 푸른 하늘을」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이 "높은 담장"과 "무거운 철문"으로 인해 수감된 상태지만 "이 누더기 속에 있지 않"다는 서술을 통해 현재 자신이 속한 감옥 안의 죄수들과 자신을 구분하려 시도한다. 다음 행에서 "이 누더기"는 "이 붉은 계열"로 반복되는데, 공산주의 부역이라는 죄목으로 수감된 재소자들과 자신을 구분 지으려는 욕망이 환유적으로 제시된다.

"나"와 "누더기" 및 "붉은 계열"이 구분될 수 있는 기준은 "나"의 "마음의 창문"이 "열려 있"다는 데 있다. "마음의 창문"은 "하늘"을 향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이때 "하늘"은 "대한의 푸른 하늘"로, 앞서 제시된 "붉은 계열"이라는 공산주의와 대비되는 자유주의를 상징한다. 붉음/푸름, 공산주의/자유주의라는 이분법적 대립을 제시하고 자신을 "대한의 푸른"쪽으로 기입하는 방식은 바로 자신을 수감한 권력의 방식이며, 시적 화자는 시를 통해 이를 구현함으로써 '주체'로서의 자기 증명을 시도한다.

자기 증명의 시도는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누가 알아주는 투

38 Ibid, pp.1-9.

39 노천명, 앞의 책, 141쪽.

사냐」[40]에서는 "붉은 군대의 총부리를 받아/대한 민국의 총부리를 받아/새빨가니 뒤집어쓰고/감옥에까지 들어왔다/어처구니없어라 이는 꿈일 게다"라는 서술을 통해 자신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에 낀 희생자이자 용공 부역 혐의란 "새빨가니 뒤집어" 쓴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자 "꿈일 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별은 창에」[41]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된다. "잘 드는 비수로 가슴속 샅샅이 헤쳐보아도/내 마음은 조국을 잊어본 일 없거늘/어인 일로 나 이제 기막힌 패를 달고/여기까지 흘러 왔느냐"에서 나타나듯, 비수로 가슴을 파헤친다는 극단적 표현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극한 상황을 시사한다. "기막힌 패"는 수인 번호-죄수로 낙인찍힌 정체성의 은유로서 「누가 알아주는 투사냐」의 "자신 없는 훈장"과 "어울리는 않는 표창"과 동일한 기의로 작동하며, "여기까지 흘러 왔느냐"를 통해 자신의 의지가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휩쓸리게 된 자신의 상황을 설의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감옥 시편에서 화자는 자신을 다른 사상범들과 구분하며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를 이분법적으로 제시한 후 후자에 자신을 기입함으로써 결백한 '주체' 만들기를 시도한다. 반공·애국이라는 '주체'로서의 자아는 출소 이후에도 끊임없이 드러나며, 오히려 이러한 '주체성'은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권력의 시선을 언제나 의식하게 만듦으로써 복종화와 주체화를 동일화하는 규율 권력[42]의 힘이 감옥 체험을 통하여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노천명은 1951년 4월 24일 부산형무소에서 출감하였으며, 1951년부터 1957년 사망 시까지 부산에서 공보실 중앙방송국 방송 촉탁 발령을 받게 된다. 이는 출감 이후에도 공보실 소속으로서 권력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교정

40 위의 책, 146쪽.

41 위의 책, 142쪽.

42 "권력은 이제 보는 대상이 아니고, 그것이 사람을 본다. 보지 못하게 하고 보는 권력. 이리하여 규율 권력의 지배는 만전을 기하게 된다. "규율은 개인을 항상 보이는 처지, 항상 보일 수 있는 처지에 놓기에 함으로써 복종화=주체화 상태를 유지한다." 연습해야 한다. 세칙을 지켜야 한다.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 사사키 아타루, 안천 역, 『야전과 영원: 푸코·라캉·르장드르』, 자음과모음, 2015, 513쪽.

된 '주체'로서의 자기 증명을 이어가야만 한다[43]는 사실을 뜻한다. 출소 이후 출간한 『별을 쳐다보며』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잘 드러난다.

> 그 담장이 높은 집 속에서 나는 몇 번인지 '여기서 나가는 날엔 문학이고 무엇이고 다 집어던져버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막상 나와 놓고 보니 문학에의 정열은 불사조 모양 잿더미 속에서 퍼덕거리며 일어나 다시 내게 안겨졌다.
>
> 잘하나 못하나 행이든 불행이든 나는 문학과 더불어 걸어가기로 했다.
>
> 내 친구들은 결국엔 나를 버리지 않았다. 나를 알아주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은 역시 대한 민국이었다.
>
> 「책 끝에」 부분 (『별을 쳐다보며』)[44]

노천명은 문학을 거의 포기하게끔 만들었던 지독한 감옥 생활과 문학에 대한 열정을 언급하며 구명 운동을 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대한 민국"을 언급한다. 이때 "대한 민국"은 다소 갑작스럽게 언급되는데, 이는 "대한 민국"의 반대급부인 북한을 전제한 것으로 읽힌다. 자신의 '주체성'을 저자의 이름을 통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별을 쳐다보며』에 수록된 수감 당시에 쓰인 감옥 시편 외 출소 이후의 시들[45]에 애국·반공의 정서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

43 "당시 공산주의자로 일단 몰리고 나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는 이 혐의를 벗기 위하여 안간힘을 다했고, 그의 애국시, 전쟁시도 그 안간힘의 일환인 것이다. 시집 〈별을 쳐다보며〉는 그의 부역 혐의를 벗겨주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신경림, 앞의 책, 331쪽.

44 노천명, 앞의 책, 112쪽.

45 "여기 모은 작품들은 1의 '별을 쳐다보며'가 비교적 최근 작들이고, 6·25가 낳아놓은 내 기막힌 얘기들은 2 '영어에서'에다 넣고 동란 통에 책들을 대부분 잃어버렸다는 독자들의 말도 있고 해서 『산호림』, 『창변』, 동지사판 내 시집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것을 몇 편 추려서 3 '검정나비'에다 얹었다." 「책 끝에」에 서술된 해당 내용을 통해 『별을 쳐다보며』가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그 중 두 부분은 시기별로-감옥 체험을 바탕으로 한 수감 시기의 시와 출감 이후 집필된 시-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카시아의 흰 꽃이 향기롭던 아침/너는 임께 바친 몸이었어라//약소민족의 비애를 삼키며/조국이 위태하던 아침/대한의 남아답게 내달아/정의의 칼을 집고 전열에 끼였나니/오늘은 북으로 북으로-//(…)//우리의 서울을 불사르고/아버지와 남편을 끌어가고/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간/우리의 원수를 찾아서-//'원수를 갚아다우!'/아버지의 시체는 '의정부' 산기슭에/눈을 뜬 채 쓰러져 있었다(…)

「북으로 북으로」 부분 (『별을 쳐다보며』)[46]

해당 시의 화자는 국가를 사랑의 대상인 "임"으로 명명함으로써 "대한의 남아"이자 국군인 "너"와 국가의 관계를 단순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넘어 긴밀하고 정서적인 관계로 형상화한다. "아카시아의 흰 꽃이 향기롭던 아침"에 "너"가 "임께 바친 몸"이 된다는 서술은 입영을 낭만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한편 '너'가 "정의의 칼을 집고 전열에 끼였"던 때가 "약소민족의 비애를 삼키며 / 조국이 위태하던 아침"으로 제시된다는 점은, 이 시에서 상정된 국가의 적이 일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오늘은 북으로 북으로—"라는 서술은 북한을 과거 민족을 위협했던 일본에 상응하는 새로운 민족의 적으로 표상한다.

나아가 "우리"의 서울을 불살랐다는 서술을 통해 북한과의 거리감이 강화되며, "아버지와 남편을 끌어가고/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간/우리의 원수"를 통해 북한=원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끌려간 아버지가 의정부 산기슭에서 눈을 감지 못한 시체로 발견된다는 서술은 북한군에 대한 깊은 원한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너"로 표상되는 독자와 군인들을 "북으로" 진군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원수로 형상화되는 북한과 북한에 대한 강한 적개심, 복수에 대한 감정적 호소와 "우리 서울"이라는 서술 등은 반공 이데올로기를 체화하고 전파하는 자아를 전제한다. 이처럼 애국적 국민으로서의 자아, 애국 담론을 형성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은 병영뿐 아니라 생산의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해방 이후 '대한민국 노동자'를 만들기 위한 권력의 의도[47]를 시화한 것으로, 권력의 욕망을 욕망

46 노천명, 앞의 책, 128-129쪽.

하는 '주체화'된 자아를 시사한다.

> 공장은 소리쳐 시민들을 흔들어 깨우고/벌써 오늘의 전열(戰列)에 들어섰다/왕왕대는 기계 소리 동력의 피대 소리//음악에 끌려 다방으로 빠진다는 아씨처럼/기계 소리에 신이 나 숙이는 공장으로 든다//한낮이면 날개를 펴 구경시키는/거리의 병든 공작들은/언제나 수치를 배울 수 있을는지//기계 소리 사람을 삼키려드는 속에/숙이는 영웅처럼 돌아간다//(…)//묵묵히 조국의 동맥이 되는 사람들/오늘도 말없이 웅장한 기계 소리를 낸다.
>
> 「기계 소리」 부분 (『별을 쳐다보며』)[48]

위 시에서 "시민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공장"으로, 이는 세계가 공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전열에 들어섰다"는 표현을 통해 공장과 군대의 동일한 메커니즘을 암시한다. "숙이"는 바람직한 산업 역군으로 제시되는데, 이때 "숙이"의 노동은 결코 타의에 의한 것이거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방으로 빠"지는 "아씨"의 유희와 동일선상에 놓인다.

"숙이"와 달리 "한낮이면 거리를 펴 구경시키는/거리의 병든 공작"은 이른 시간부터 돌아가는 공장의 시간대에서 벗어난 이들이다. 시적 화자는 이들을 "병든 공작"으로 형상화하고 수치를 모르는 이들로 폄하함으로써 노동자 "숙이"를 격상시킨다. 나아가 사람을 삼키는 기계와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 "돌아"가는 숙이를 영웅화한다. 이는 "조국의 동맥"이라는 애국 담론과 연결되는데, 앞서 기계

---

47 "남한의 정치 권력은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근로 의욕을 끌어내려 했다. "일을 해야만 가치 있는 삶이며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회의 폐인이자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규범이 내려지는 가운데, 정부는 1949년부터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노동 강조 주간'을 마련하고 '모범 노동자' 표창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해방 이후 거센 열풍을 몰고 온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의 활동과 노동자 국가를 자임하는 북한과 대립하는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적인 '대한민국 노동자'를 만드는 일이었다. 이에 노동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전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정은, 「1950년대 노동 지배 담론과 노동자의 대응」, 『역사비평』 83호, 역사비평사, 2008, 154쪽.

48 노천명, 앞의 책, 135-136쪽.

소리로 사람들을 깨우는 공장은 “웅장한 기계 소리를 내는” 기계화된 노동자들과 연결됨으로써 시민이란 곧 노동자라는 점을 드러낸다.

이처럼 출소 이후 발표된 시에서는 군대와 공장-병력 및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반공·애국 담론을 형상화하는 ‘주체화’된 자아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양상은 유고시집 『사슴의 노래』[49]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문이라는 중세적 형태에 ‘유용하고 순종적인 신체’를 만들고자 하는 근대적 목표의 결합인 근대 감옥 제도[50]의 결과이다. 형식적인 재판과 죽음에 대한 공포[51], 공산주의자라는 낙인에 따라붙는 사회적·육체적 위협은 당대의 주인 담론이자 고문자로, 용공 부역 혐의로 수감된 노천명은 해당 담론에 따라 고문자가 필요로 하는 바, ‘유용하고 순종적인’ 애국자로서의 기표를 받아들이고 이를 스스로 실행하는 상징적 동일시[52]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

49 「불덩어리 되어」에서는 「북으로 북으로」에서처럼 일제와 공산주의 및 북한을 동일한 “원수”의 위치에 놓으며, 이념 투쟁을 민족 투쟁으로 전환하여 갈등 상황을 “한 덩어리”가 되어 타개하고자 함은 반공이라는 목표 아래 개인을 묵살하는 권력의 방식을 재현한다. 「권두시 1」에서는 「기계 소리」와 같이 “이 나라 튼튼한 살림의 고임돌”이 되려는 의욕적인 ‘주체’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나타난다.

50 신병식, 『국가와 주체』, b, 2017, 127쪽.

51 노천명이 수감되었던 부산형무소는 ‘부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7월부터 9월 사이 수감되어 있던 재소자들을 집단 학살하였으며, 이때 학살당한 재소자들은 대부분 좌익 사상범들이었다. 당시 재소자 중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형을 선고받거나 재판 중인 민간인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5909, 2026.07.11.

52 신병식은 정신분석학을 통해 현대 한국의 고문과 폭압적 재주체화를 설명한다. 실제 간첩이 아닌 피고문자는 고문을 통해 고문자에 의해 발화되는 주인 담론(너는 간첩이다)을 받아들이고 난 후 어떻게 간첩이 되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대학 담론을 통해 변형된다. 피고문자의 협력은 주인 기표의 변증화를 통해 고문자가 만들어 내는 서사에 구체성과 일관성을 만들어 내며, 자신 내부에도 일종의 믿음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고문자가 시키는 내용을 그대로 실행할 뿐인 상상적 동일시의 단계를 넘어서 고문자의 입장을 내면화하여 고문자가 필요로 하는 바를 스스로 알아서 행하는 상징적 동일시의 단계에 이른다고 서술한다. 신병식, 앞의 책, 140-158쪽 참조.

애국·반공이라는 담론과 권위가 만들어내는 기표의 사슬은 내부의 사람들에게 불가항력적이고 암묵적인 힘을 행사하며 개인을 사슬 속의 기표로 대체[53]한다. '주체화'된 자아의 모습은 수필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1954년 출간된 수필집『나의 생활백서』중「첫인상」에서는 공보실 중앙방송국 발령을 받은 후 아나운서들에 대한 첫인상을 애국 및 자유와 결부지어 서술하고 있다.

> 모두가 늠름하고 미끈한 청년들…… (…)
>
> 이렇게들 싱싱하고야 자유의 소리가 씩씩하지 않을 수 없을 게다. 나는 단박에 십 년이 젊어지는 것 같다. 방에 들어서면 일하는 기운이 화끈하다.
>
> 일을 할 때에는 담배 한 모금은커녕 옆눈 하나 팔지 않는 여기 일꾼들의 모습은 바로 공산군을 무찌르는 싸움터로 통하는 모습일 게다.
>
> 여기가 대한 민국의 자유의 소리를 내보내는 곳인가 하면 새삼스레 존엄을 느낀다.
>
> 「첫인상」 부분[54]

아나운서들의 작업을 "자유의 소리"로 명명한다는 점과 이들의 '근면한' 모습으로 인해 "십 년이 젊어지는 것 같다"는 서술은 이들의 열의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시선을 드러낸다. 이들의 노동은 "공산군을 무찌르는 싸움터로 통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는데, 이러한 노동과 이념의 결합은 앞서 제시된 애국·반공 담론의 방식과 동일하게 작동한다. 화자는 이 공간을 "대한 민국의 자유의 소리를 내보내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금 인지하면서 "새삼스레 존엄을 느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 노천명이 부산에서의 생활을 힘겨워하고 서울을 그리워했다는 사실[55]을 미루어볼 때 애국·반공 사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주체화'된 자아의 모

53 위의 책, 168쪽 참조.

54 노천명,『노천명 전집 2: 나비』, 솔, 1997, 358-359쪽.

55 노천명은 수필「바다를 바라보며」에서 "**나 역시 방송국 합숙소에 들어와 이 장마당 같은 방에서 신세를 지는 형편이 아닌가. 사조 방에 다섯이서, 때로는 여섯 여인이 복닥거리노라면 두고 온 서울 생각이 불일 듯 난다.** 더구나 요즈음은 다다미 넉 장이 한 장도 성한 것이

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목적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천명은 좌익에 대한 적대감 표출과 애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수감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주체'됨을 증명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텍스트 중 대표적인 것은 1952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수필 「오산이었다」[56][57]이다. 「오산이었다」의 내용은 적극적 부역 부인 및 공산주의자의 위협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 이날도 나는 문학가동맹 회관에 나왔다. 날마다 여기를 나오지 않고는 못 배겼다.
>
> 한밤에 집에 와서 총을 놓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또 책을 온통 뒤집어놓고 가고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자라고 규정을 내리고 간 뒤부터는 이사를 온 뒤에 그렇게 마음에 들고 예쁘던 내 집이 구석구석 무서워만지는 것이었다.
>
> 그들의 손이 닿던 곳은 다 싫고 수돗가에 뚫린 총알 자국은 아침 세수를 할 적마다 나를 괴롭혔고 (…) 나는 혼자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들고 또 이렇게 죽는 것은 무서웠다. 밤중에 총을 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드는 것을 겪고 또 새벽 한시에 가택 수색을 당하고, 낮에는 수차에 걸쳐 보안부 정보원들이 무시로 와서 불쾌하게 집을 뒤지고 간 뒤로는 대문만 흔들면 그저 가슴에서 방망이질을 하는 것이

없이 모두 다 내장이 나오도록 해져서 종달새가 알두구니를 치기 알맞게 되어 가지고는 그 면적은 나날이 커갈 뿐이다. 앉았다 일어났다면 치마에는 북데기가 묻어난다. 저녁을 먹고 나면 **바다라도 내다보고 와야 견딜 수 있는 심경도 미상불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고 서술한다. 위의 책, 213쪽, 강조는 인용자.

56 노천명, 앞의 책, 450-460쪽.

57 나보령은 노천명이 한국전쟁기 여러 문학 장르를 활용하며 자신이 처한 억압과 배제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오산이었다」에 대하여 실제 체험을 은폐하는 대신 개인적인 수난을 부각함으로써 대한민국 문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강조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지적한다. (나보령, 「노천명의 한국전쟁기 산문 연구: 카르토그라피로서의 수기, 편지, 수필과 글쓰기 전략」, 『한국문학논총』 93호, 한국문학회, 2023.) 본고는 실제 체험의 은폐라는 수동적 차원을 넘어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을 떠난다는 허구로서의 적극적인 대안 서사 만들기에 주목하고자 한다.

싫었다. (450)

"이날도 나는 문학가동맹 회관에 나왔다"로 시작되는 글은 다소 도발적이다. 문학가동맹 가입으로 인해 수감되었음에도 이를 서두에 제시함은 뒷문장에서 이어지는 "여기를 나오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이유를 서술하기 위함으로 읽힌다. 그 이유한 북한군이 "집에 와서 총을 놓고 가"고 "책을 뒤집어놓고 가"는 것도 모자라 자신을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자신이 북한과 같은 편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압박을 받는 존재이며, 북한의 정보기관인 보위부에 수시로 수색을 당하는 상황임을 드러낸다. 또한 "우리 편이 얼마나 죽었는지 아우? 경찰 고문과 투옥으로 이십만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당신네들을 삼십만을 죽여야 하오. 당신들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오"(450-451)라는 빨치산의 말은 노천명 자신이 그들의 "우리 편"이 아니며 "당신네"들에 속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우는 것조차 반동으로 취급받는 상황에 눈물을 훔치고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함께 사는 계집아이조차 매수당해 의심해야 하는 것[58]이 곧 "그들의 정치"라는 서술에서는 공산 치하에서의 삶이 불안과 공포로 구성되었음을 드러낸다. 이에 더하여 낙랑클럽의 일원이자 자금을 빼돌린 김수임과 공범임을 추궁당함으로써 위기는 절정에 달한다. "협력을 하면 괜찮으리라는 예상-좌익 사람들 중에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으리라는 기대-모든 것은 나의 오산이었다"라는 서술은 제목이자 고백의 핵심이다. 문학가동맹에 가입하였으나 우익으로 취급받고, 지인이었던 김사량은 자신을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화자는 남쪽으로 떠날 결심을 한다.

아무래도 남쪽을 향해 빠져 나가는 수밖엔 없다.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58 "이 사람들의 정치 밑에서 운다는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의 반동일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 계집아이도 요새 와선 은근히 무서워졌다. 게 패 우(G. P. U: 비밀 경찰)들이 이 계집아이를 매수한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약아빠진 소녀는 언제 무슨 소리를 해서 나를 없애버릴지도 모르는 일이다. 내가 정들이며 자식 모양 기르던 이 어린것에게도 속을 주어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정치였다." 노천명, 앞의 책, 453쪽.

단념했다. 내 손때가 묻은 책들도, 자개농도, 옷들도 다 버리기로 했다. (…) 이 여인과 나는 보퉁이를 푹 눌러 이고 새벽잠에 묻힌 고달픈 서울을 서쪽으로 빠져 나갔다. (459-460)

이 부분이 바로 「오산이었다」가 체험적 성격을 짙게 띠고 있으나 장르 구분이 모호하여 편집 과정에서 소설로 분류[59]된 원인이다. 노천명은 실제로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9.28 서울 수복 이후 용공 부역 혐의로 수감되었으나, 「오산이었다」의 결말은 공산 치하의 서울을 탈출한다는 허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구화는 단순히 사실의 왜곡이나 장르 혼란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분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때 자서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진정성이라는 추상적 개념보다는 작가의 현재 관심사의 표출로서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삶-이야기의 불일치는 '진실'에 대한 위반이 아니라 주체에 대한 불일치의 기능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분석[60]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천명이 선택한 탈출이라는 허구적 결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 "자개농"과 "옷"과 같은 재산뿐 아니라 작가로서의 정체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 손때가 묻은 책"을 "다 버리"기로 함으로써 과거와 결별하고 "용기를 내어 단념"하는 결단적 주체를 형성한다. 둘째, 앞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탈출을 감행함으로써 죽음을 무릅쓸 만큼 북한(군) 치하가 견딜 수 없는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나아가 반공·애국의 자아를 증명하려는 작가의 관심사를 드러낸다. 즉 「오산이었다」의 허구적 결말은 실제 경험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작가가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던 자아상을 사후적으로 구축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자기-정의의 드라마적 성격을 보여준다.

애국·반공 시편들이 상징 질서가 요구하는 '주체'로서의 자아를 직접적으로 표명하는 것과 달리 「오산이었다」는 허구적 결말을 통해 그러한 자아상을 사후

59 위의 책, 450쪽 참조.

60 Jan Alber, Monika Fludernik, op.cit., p.267.

적으로 구축해내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노천명이 반공·애국이라는 상징 질서의 요구에 부합하는 '주체화'된 자아를 증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즉 이 장에서 살핀 텍스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체화'된 자아를 구성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는 노천명의 자기-정의의 드라마가 상징 질서에 부합하는 자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말해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주체화'의 이면에서 드러나는 균열의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이름 폐기의 욕망과 위협적 권위의 균열

노천명은 감옥 시편에서부터 출감 이후의 시와 수필에서 애국·반공의 자아를 반복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규율 권력의 목표이자 욕망인 '주체'로서의 자아를 구현하였다. 이는 옥중에서는 용공 부역 혐의로 수감되었던 자신을 변호[61]하는 동시에 출소 이후 다시 좌익으로 몰리지 않기 위한 예방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처음 노천명에게 선고된 20년형의 형기가 6개월로 대폭 줄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기능이 실제로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감옥의 목표인 교정, 즉 '주체화'가 달성된다고 판단되면 죄인은 사회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62]이다.

그러나 시인이 실질적 권위에 포섭되어 완전히 '주체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복된 권력 행사는 개인으로 하여금 처벌 수단을 제시하지 않아도 복종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실질적 권위가 아니라 위협적 권위[63]에 불과하다. 노천명은 한편으로는 애국·반공시 및 수필을 통해 '주체화'된 자아를 반복적으로 표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상징 질서가 부여한 '이름'을 거

61 "형기는 범죄의 '교환가치'를 측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역 중인 수감자의 '유익한' 변모에 적합해야 한다. 척도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목표가 정해진 시간이다. 대가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운용의 형식이다." 미셸 푸코, 앞의 책, 370-371쪽.

62 "개개인의 인식과는 관계없이 전쟁으로 인해 형성된 분단체제는 좌익에 대한 사회적 적대감을 요구하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좌익으로 내몰았다." 최정기,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형무소 실태 연구」, 『제노사이드연구』 2호, 2007,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83-84쪽.

부 및 폐기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주체화'의 균열을 노출한다.

이름의 박탈은 인격의 무시와 개체화를 통한 통제의 한 방식이다. 수형자는 입소와 동시에 수의를 입고 번호로 불림으로써 사회에서 차지했던 지위나 명예, 위치와 관계없이 국가 권력에 의해 지배되고 통제되는 대상으로 비인격화[64]되며, 이는 「감방 풍경」[65]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함께 지내는 지 달포에/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다/'오십팔 번' '이십 번'으로 불편 없이 통함에랴//좋은 별명을 까닭 없이 싫어하는/잘생긴 나폴레옹 할머니/'오늘은 날이 좋으니/말을 타고 알프스 산이나 넘어보시죠'
>
> 「감방 풍경」 부분 (『별을 쳐다보며』)

수감자들은 함께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서로 이름을 묻지 않는다. 죄수들에게 이름이란 박탈된 것이며, 감옥의 질서 안에서 번호로 규격화되기 때문이다. 두드러지는 점은 이름 없이도 "불편 없이 통함"에도 시적 화자는 다른 죄수에게 "별명"을 붙이는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시적 화자는 늙은 죄수에게 "나폴레옹"이라는 별명을 붙이고 "'오늘은 날이 좋으니/말을 타고 알프스 산이나 넘어보시'"라는 농담을 던진다.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황제의 이름을 붙이고 알프스 산을 넘어 보라는 말은 같은 죄수에게 던져졌으므로 이는 조롱보다 희극적 농담에 가까우며, 이는 실존의 위협에 직면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 저항[66]하는 기능을 한다. 시적 화자가 던지는 농담은 "별명"

63 신병식, 앞의 책, 370-371쪽 참조.

64 최정기, 앞의 글, 89-90쪽.

65 노천명, 『노천명 전집 1: 사슴』, 158쪽.

66 "사형선고를 받은 어떤 남자가 사형집행일인 월요일 아침 처형 장소로 가면서 "한 주가 기분 좋게 시작하는군"이라고 말하는 예는 유머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다. (…) 유머를 통해 우리는 위협적인 현실에 대해 의연한 태도를 취하며 적극적으로 공포심을 극복한다. 즉 유머는 실존의 위협에 직면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 저항하기 위해 그것을 우습게 만들고 그것과 유희한다." 정현경, 「웃음에 관한 미학적 성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9, 123-124쪽.

붙이기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감옥의 질서가 부여한 번호에서 벗어나려는 욕망과 동시에 박탈된 이름에서도 벗어나려는 욕망을 시사한다. 이처럼 시적 화자의 이름 거부의 욕망은 이름 폐기의 욕망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유명하다는 것」(『별을 쳐다보며』)[67]에서 "유명하다는 건 얼마나 거북한 차림차림이냐/이 거추장스런 것일레/나는 저기서도 여기서도/걸려 넘어지고/처참하게 찢겨졌다//아무도 관심을 안 해주는 자리는/얼마나 또 편한 위치냐"라는 서술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 시에서 "유명(有名)"은 "거북한 차림차림"이자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시적 화자는 이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고/처참하게 찢어졌다"고 서술한다. 이는 역사적 호명 행위 안에서 근대적 호명 체계가 자신에게 부여한 '이름'이라는 것의 억압 및 속박, 허무[68]를 드러낸다. 이윽고 시적 화자는 "아무도 관심을 안 해주는 자리"를 욕망하게 되는데, 이는 '이름'을 벗어버림으로써 달성됨을 암시한다. 이름을 거부하고 폐기하려는 욕망은 「고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 청춘을 바친 이 땅/오늘 내 머리에는 용수가 씌워졌다//고도(孤島)에라도 좋으니 차라리 머언 곳으로-/나를 보내다오/뱃사공은 나와 방언이 달라도 좋다//내가 떠나면/정든 책상은 고물상이 업어갈 것이고/아끼던 책들은 천덕구니가 되어 장터로 나갈 게다//(…)//온갖 화근이었던 이름 석 자를/갈기갈기 찢어서 바다에 던져버리련다/나를 어니 멀리 떨어진 섬으로 멀리멀리 보내다오//(…)별이 있고/하늘이 보이고/거기 자유가 닫히지 않는 곳이라면-
>
> 「고별」 부분 (『별을 쳐다보며』)[69]

이 시에서도 이름은 「유명하다는 것」에서와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 "용수가 씌워"진 죄수로서의 시적 화자는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찍은 상징 질서가 작동하는

67 노천명, 앞의 책, 155쪽.

68 김승희, 「노천명 시에 나타난 우울증적 주체와 젠더 멜랑콜리 양상 분석」, 『비교한국학』 21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191쪽 참조.

69 노천명, 앞의 책, 160-161쪽.

“이 땅”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을 반복적으로 진술한다. “이 땅”과 먼 공간인 “고도(孤島)”로 떠나려는 욕망은 “이 땅”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나타내며, 자신을 “고도”로 데려다 줄 “뱃사공은 나와 방언이 달라도 좋다”는 서술에서는 자신의 언어 또한 방언에 속한다는 점을 암시함으로써 표준 언어 체계라는 질서에서 벗어난 자아를 시사한다. 또한 “정든 책상”과 “아끼던 책들”은 “청춘을 바친 이 땅”과 시적 화자의 매개[70]이며, 이를 버리고 떠남은 이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욕망[71]과 더불어 “자유”에 대한 깊은 갈망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름 폐기의 욕망은 상징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욕망과 연결되는데, 이는 「이름없는 여인 되어」에서 고향과 향수 이미지를 통하여 제시된다.

> 어느 조그만 산골로 들어가/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초가 지붕에 박 넝쿨 올리고/삼밭엔 오이랑 호박을 놓고//들장미로 울타리를 엮어/마당엔 하늘을 욕심껏 들여놓고/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부엉이가 우는 밤도 내사 외롭지 않겠소/기차가 지나가버리는 마을/놋양푼의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여우 나는 산골 얘기를 하면/삽살개는 달을 짖고/나는 여왕보다 더 행복하겠소
>
> 「이름없는 여인 되어」 전문 (『별을 쳐다보며』)[72]

“어느 조그만 산골”은 상징 질서에서 벗어난 공간이라는 점에서 「고별」의 “고도”와 유사한 공간이며, 이 “산골”의 이미지가 시인의 유년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징화 이전의 상상계적 공간성과 더불어 상징 질서가 지닌 근대성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 “헛간 지붕에 핀 박꽃의 하얀빛”과 “참살개(삽사리)란 놈은 괜히 짖어대면 마침내 온 동리 개들이 달을 보고 싱겁게 짖어대”는 풍경은

---

70 임명숙, 앞의 책, 232쪽.

71 이는 「오산이었다」에서 공산 치하에 못 이겨 떠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단념했다. 내 손때가 묻은 책들도, 자개농도, 옷들도 다 버리기로 했다”는 서술과 겹치는데, 이를 통하여 공산주의나 자유주의 모두 동일한 억압적 상징 질서이자 자신을 억압하는 권위로 작동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72 노천명, 앞의 책, 162쪽.

1948년 발표된 수필집 『산딸기』의 「여름 밤 애기」[73]에 나타나는 고향의 여름밤 풍경이며, 「향토유정기」[74]에 제시되는 "밤이면 어머니는 엿을 녹이"는 곳, "부엉이집", "램프 불 밑에서 듣는 애기"라는 고향의 요소를 내포한다.

고향의 속성을 지닌 "산골"은 "기차가 지나가버리는 마을"로 나타나는데, 이는 「향토유정기」에 이어 「망향」[75]에서 제시되는 "조밥과 수수엿이 맛있는 고을 나뭇짐에 함박꽃을 꽂고 오던 총각들/서울 구경 원이더니/기차를 타보지 못한 채 마을을 지키겠네"라는 부분과 연결됨으로써 "서울"이라는 근대 공간과 구별되는 전근대 공간임을 시사한다. 즉 시적 화자는 전근대-유년 공간인 "어느 조그만 산골"에 들어감으로써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여왕보다 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적 화자의 근대 상징 질서에 대한 거부는 이름 폐기의 욕망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시적 화자의 이름 폐기의 욕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름의 박탈이란 개인을 원자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감옥의 방식이며, 이를 통한 이름의 상실은 자아의 심각한 축소를 뜻하기 때문[76]이다. 그러므로 박탈된 이름을 되찾는 것은 자아의 회복을 뜻하며, 건전한 자아를 지닌 '주체'로 교정됨으로써 사회-상징 질서-에 복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적 화자는 박탈된 이름을 회복하여 상징 질서로 복귀하는 '정상적' 경로를 따르는 대신 오히려 박탈된 이름을 폐기하려는 욕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는데, 이는 규율 권력의 궁극적 목표인 '순종하는 신체 만들기'에 완전히 포섭되지 않는 자아를 시사한다. 이러한 자아의 양상은 출소 이후 쓰인 시와 수필에서 권력의 억압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통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

73 노천명, 『노천명 전집 2: 나비』, 57-58쪽.

74 위의 책, 105-106쪽.

75 위의 책, 107-108쪽.

76 "입소 절차는 과거 정리와 새 출발을 함축하는데, 그 중간에서 사람은 실제로 벌거벗겨진다. 과거 정리는 물론 소유물의 압류를 포함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유물에 자아의 감정을 투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러한 소유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혀 물리적이지 않다. 바로 자신의 이름이다. 입소 이후 어떻게 불리건, 이름의 상실은 자아의 심각한 축소를 뜻한다." 어빙 고프만, 앞의 책, 33쪽.

아직도 날이 아니 새었느냐/몹시도 긴 밤이어라//참고 보자니/오장이 터질 것만 같아라/나를 왜 창살로 둘렀다냐/밤이면/서울을 안고/나 소리 없이 흐느껴 우노라……

「인경의 독백」 전문[77]

위 시는『현대시인전집 2: 노천명집』의 3장에 수록된 시이자 "6·25가 낳아놓은 내 기막힌 애기들"인『별을 쳐다보며』에는 수록되지 않은 시이다. 노천명은「자서」에서 "여기 모둔 시 가운데 1은 1936년에 낸『산호림』에서 추린 것들이고 2는 1945년 정월 제이차대전의 화중에서 시달리며 내논 제2시집,『창변』에서 뽑은 것들이고, 해방 후에 쓴 것들을 3에다 넣었다."[78]라고 서술한다. 즉「인경의 독백」은 해방 이후에 작성되었으나 감옥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감된 상태가 아님에도 시적 화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감옥과 마찬가지로 "창살로 둘"러진 상황에 고통스러워한다. 이는 감옥 시편인「별은 창에」(『별을 쳐다보며』)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동일한데, "단잠을 앗아간 지리한 밤들이/긴 짐승 모양 징그럽게 감겨들고/밝기를 기다리는 괴로운 시시각각/한숨과 더불어 몸 뒤척이"[79]이던 감옥에서 시달리던 규율 권력의 억압이 출소 이후에도 지속됨을 시사한다.

시적 화자는 "참고 보"려 하나 "오장이 터질 것만 같"은 답답함을 느끼며, "밤이면/서울을 안고/나 소리 없이 흐느껴" 운다는 서술은 밤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이 반복됨[80]을 암시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도 서울의 부자유라는 아이러니를 드러낸다.

"창살"로 은유되는 권력의 억압이 출소 이후에도 지속됨으로써 자아를 위협

77 노천명,『노천명 전집 1: 사슴』, 248쪽.

78 노천명,『현대시인전집 2: 노천명집』, 동지사, 1949, 9-10쪽.

79 노천명,『노천명 전집 1: 사슴』, 142쪽.

80 "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단순한 근거 따위를 나타내거나 수시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 조건을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면」,『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999.

하는 모습은 수필 「나의 생활백서」[81]에서도 제시된다. 이 글에서는 출소 후 공보실 중앙방송국 촉탁 발령을 받고 합숙소에서 일 년간 기식하다가 판잣집을 얻게 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이렇게 사는 것을 생활이랄 수는 없고 생존이라고나 해야 옳을 것이다. (…) 방 하나가 온갖 시간에 원해졌건만 이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었다. (…) 식당아주머니한테 담배니 사과니 사러 오는 사람들이 때없이 풀떡풀떡 문을 여는 통에 자리를 펴고 자는 꼴도 보여야 하고 분을 바르는 것도 들켜야 하는 일이 내게는 벌을 서는 것 같은 일이었다. (…) 정말 내 이런 모양을 남들에게 보이는 정신적 고통이 내가 당하는 모든 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내게는 큰 것이었다. (195)

방송국 합숙소에서의 생활을 "생존이라고나 해야 옳을 것"이라는 첫 문장에서부터 합숙소 생활의 열악함이 드러나는데, 이 고통의 원인은 "방 하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방 하나"는 "자는 꼴"과 "분을 바르는 것"을 보이지 않고 들키지 않는 공간,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타인에게 자신의 상태를 보이는 일이 "벌을 서는 것 같"으며 "정신적 고통이 내가 당하는 모든 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내게는 큰 것"이라는 서술은 재소자들의 모든 행위가 감시받고 기록되는 감옥의 메커니즘이 상기됨을 암시[82]한다.

그러므로 화자는 타자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합숙소 생활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지인의 집으로 "달아"나는 일시적 도피를 감행하나, "하꼬방

81 노천명, 『노천명 전집 2: 나비』, 195-201쪽.

82 노천명은 생활을 보인다는 사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는 것 자체에 대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인다. "부득이 만날 사람이 있어 다방엘 나가 앉는 순간은 정말 벌을 서는 것같이 확확 얼굴이 달아올랐다"고 서술하는데, 이는 감시와 규율 체제로 이루어진 감옥 체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힌다. 또한 지인이 보내준 시중 드는 사람도 돌려보낸 뒤 "호젓한 내 세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서술한다. 「오산이었다」에서 자식처럼 키운 소녀가 비밀경찰에게 매수당했다는 서술로 미루어볼 때 이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노천명, 위의 책, 199;200쪽.

이래두 하나 짓자"는 친구의 말에는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 친구의 제안에 "날개도 다리도 잘라놓은 나비 모양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서술에서는 무력한 죄수의 자아가 드러난다. 결국 판잣집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은 지인이 재목을 준다는 외부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며, 노천명은 그 사건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만 합숙소로부터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판잣집을 짓고 난 후 화자가 느끼는 바는 "판잣집이든 어디든 자유 천지니 좋다. 이 속에서 내가 먹거나 굶거나 누가 알 것이냐"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새집이라고 놀려도 "이 집이 나는 남의 양관 부럽잖게 좋다. 그저 자유로운 내 처소라는 것이 다시없이 좋은 물건"이라고 서술한다. 이는 「콩 한 알은 황소가 한 마리」에서처럼 식사조차 감시받고 강제되는 감옥에 대한 트라우마가 지속됨과 더불어 출소 이후에도 화자가 감옥과 마찬가지로 통제와 감시 하에 있임을 암시한다.

"자유"를 끊임없이 호명하며 욕망하는 '감옥 밖' 시인의 모습은 「거지가 부러워」(『별을 쳐다보며』)[83]에 나타나는 '감옥 안' 시적 화자의 모습과 겹친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다면/나는//첫째로 자유/둘째로 자유/셋째도 자유라 하겠다"라 말하던 시적 화자의 정서는 출감 이후에도 동일하게 재현된다. 출소 이후 텍스트에서도 "자유"에의 욕망이 지속적으로 반복됨은 실질적인 자유의 부재와 결핍을 증명한다.

이처럼 출감 이후에도 부자유하고 억압받는 자아의 고통스러운 양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958년 출간된 유고시집 『사슴의 노래』에 수록된 「나에게 레몬을」[84]에서 극한 상황으로 구체화된다.

> 하루는 또 하루를 삼키고/내일로 내일로/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요 밀려가오//구정물을 먹었다 토했다/허우적댐은 익사를 하기가 억울해서요//(…)//꿈 대신 무서운 심판이 어른거리는데/좋은 말 해줄 친척도 안 보이고!/할머니 내게 레몬을 좀 주시지/없음 향취 있는 아무거고/곧 질식하게 생겼소!

83 노천명, 『노천명 전집 1: 사슴』, 156쪽.

84 위의 책, 231-232쪽.

위 시에서 두드러지는 바는 시적 화자의 무력함과 수동성이다. “하루”로 나타나는 시간은 “또 하루를 삼키”는 존재로, 시적 화자가 경험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오히려 시적 화자는 “내일로 내일로”, 즉 미래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밀려가”는 수동적 존재로 구체화된다. 즉 “하루를 삼키”는 “하루”로 인하여 시적 화자는 “내일로” 밀려나는 무력한 존재로, 시적 화자에게 미래란 희망이나 기획의 대상이 아닌 저항할 수 없는 형벌적 연속으로 감각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구정물”을 먹고 토하면서까지 허우적대는 이유가 “익사를 하기가 억울해서”라는 서술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강한 거부감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특히 “익사”라는 시어는 “밀려가오”로 표현되었던 시간의 흐름과 연결되며, 시간을 화자를 잠식하는 ‘물’로 은유하는 이미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처한 정신적 한계 상황과 고통의 일상성을 구체화한다. 나아가 시적 화자의 필사적인 “허우적댐”의 근간이 “억울”함에 있다는 것은 권력에 의해 압도된 자아가 완전히 무력화되지는 않았다는 것, 부당함을 느끼고 저항하려는 최소한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의 말미에 이르러 시적 화자는 “무서운 심판이 어른거리는데/좋은 말 해줄 친척도 안 보이”는 상황, 즉 위협적 권위와 이를 방어해줄 존재가 부재가 겹쳐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드러낸다. “곧 질식하게 생겼소!”라는 외침은 시적 화자가 느끼는 극한의 공포를 나타내며, 자아의 무력함이 질식, 즉 죽음의 위협으로까지 수렴한다는 서술은 위협적 권력의 억압이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의 강도로 화자에게 감각됨을 보여 준다. 앞서 “구정물”을 먹고 토하면서도 “억울해서” 허우적대던 시적 화자에게 남아 있던 최소한의 저항적 몸짓은 이 지점에 이르러 “질식”이라는 외침으로 대체된다. 즉 시가 진행될수록 저항의 여지는 축소되며, 이는 시적 화자가 처한 부자유의 강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신체와 정신을 잠식하는 권력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준다.

이처럼 출소 이후에도 지속되는 권위의 압박과 더불어 “자유”를 갈망하는 자아의 모습은 노천명이 다른 작품에서 애국과 반공을 강력하게 노래하며 ‘자유주의’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주체로 자신을 내세우는 양상과 연결할 때 더욱 문제적인 지점을 형성한다. “대한 민국의 자유”를 두둔하는 자아가 실상 “질식”의 위협

을 느끼는 부자유한 존재로서 고통스러워함은 그가 그토록 옹호하는 “대한 민국의 자유”가 실제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폭로하기 때문이다. 즉 감옥 체험을 통해 ‘주체화’된 자아가 서술하는 애국·반공의 정서는 그 정서를 발화하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균열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기치로 내건 ‘자유’는 이러한 균열 속에서 공허한 기표로 남는다.

5 나가며

노천명에게 감옥 체험은 그의 자아와 정체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순종하는 신체를 생산하는 권력의 목표는 용공 부역자를 애국·반공 이데올로기를 체화한 ‘주체’로 교정하는 감옥을 통하여 실현되었다. 이를 위한 외부 사회와의 격리, 자아에의 위협과 오염, 이름의 박탈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감옥 시편을 통하여 잘 드러난다.

격리는 죄수를 기존의 관계망으로부터 단절시켜 고립된 존재로 재편하며, 자아에의 위협과 오염은 신체적·정신적 극한 상태를 통해 기존 자아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름의 박탈은 사회적 정체성의 표지를 제거함으로써 죄수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각인하는 절차로 기능한다. 감옥 시편에서 구현되는 체험성은 시적 화자의 경험의 개인화된 표현으로, 감옥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기존 자아를 위협받고 죄수로서의 자아를 받아들이는 서사적 흐름으로 읽을 수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권력은 죄인에게는 자기변호의 방편으로 ‘주체’ 증명을 반복하게끔 만들며, 이로 인해 반공·애국이라는 ‘주체’로서의 자아는 출소 이후에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권력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게 만듦으로써 복종화와 주체화를 동일화하는 규율 권력의 힘을 수감 경험을 통해 체화했기 때문이다. 노천명은 애국·반공 정서를 바탕으로 한 글을 통하여 ‘주체화’된 자아를 증명하고자 애쓰며, 수필 「오산이었다」에서는 결말에 허구적 요소를 부가함으로써 ‘주체’로서의 자아를 증명해야 한다는 작가의 현재 관심사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천명은 출소 이후에도 지속되는 억압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름’을 폐기하려는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주체화’의 틈을 노출한다.

박탈 이후 회복된 '이름'을 폐기하려는 시적 화자의 욕망과 출소 이후에도 억압에 짓눌려 "자유"를 욕망하는 모습은 상징 질서의 위협적 권위를 드러내고 시인 자신이 증명하려 애쓰던 애국·반공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처럼 감옥의 체험성은 이후 텍스트들에서 제시되는 시인의 자아 형성의 기반으로 작동한다. 상징 질서에 의해 '주체화'된 자아의 모습과 더불어 '주체화'가 완결되지 않은 균열의 지점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양상은 "나"가 자주적이고 단일한 자아의 충실한 표현이 아니라 서사적 행위로 해석된 자아[85]임을 증명한다.

본고는 감옥이라는 특수한 공간이 억압의 장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주체를 생산하고자 하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가시화하는 장소임을 노천명의 텍스트를 통해 확인하였다. 상징 질서에 순응하여 '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아와 이름조차 폐기하려는 자아의 이중성은 '주체화'의 틈을 보여준다. 이는 천명(天命)과도 같은 상징 질서와 권력에 대응하는 노천명의 자기-정의의 드라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노천명, 『현대시인전집 2: 노천명집』, 동지사, 1949.

_____, 『노천명 전집 1: 사슴』, 솔, 1997.

_____, 『노천명 전집 2: 나비』, 솔, 1997.

단행본

김삼주 편, 『노천명』, 문학세계사, 1997, 279쪽.

신병식, 『국가와 주체』, b, 2017, 127쪽.

이숭원, 『노천명』,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157-159쪽.

이어령, 『한국작가 전기 연구 상』, 동화출판사, 1975, 142쪽.

85 Jan Alber, Monika Fludrnik (eds.), op.cit., p.261.

이진경,『철학의 외부』, 그린비, 2002, 135쪽.
임명숙,『노천명 시와 페미니즘』, 한국학술정보, 2005, 232쪽.
최정기,『감금의 정치』, 책세상, 2005, 43쪽.
한인섭,『형벌과 사회통제: 근대감옥의 성립과 변모, 그리고 현대교정』, 박영사, 2006, 181쪽.

드레피스·라비노우, 서우석 역,『미셸 푸코: 구조주의와 해석학을 넘어서』, 나남, 1989, 302, 358, 370-371쪽.
미셸 푸코, 오생근 역,『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나남, 2003, 358쪽,
사사키 아타루, 안천 역,『야전과 영원: 푸코·라캉·르장드르』, 자음과모음, 2015, 513쪽.
어빙 고프만, 심보선 역,『수용소』, 문학과지성사, 2018, 16-19, 33쪽.

Andrew Sobanet, *Jail Sentences: representating prison in twentieth-century french fiction*, University of Nebraska, 2008, pp.9-10.
Michelle Foucault, *Power/Knowled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Pantheon Books, 1980, p.119.
Jan Alber, Monika Fludernik (eds.), *Postclassical Narratology: Approaches and Analyse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10, p.261;267.

3. 논문
곽효환,「노천명의 자의식과 친일·애국시 연구」,『한국근대문학연구』24호, 한국근대문학회, 2011, 7-37쪽.
김민숙,「노천명 시에 나타난 장소성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논문, 2011, 1-203쪽.
김승희,「노천명 시에 나타난 우울증적 주체와 젠더 멜랑콜리 양상 분석」,『비교한국학』21권 3호,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171-202쪽.
김윤경,「한국전쟁기 부역자 처벌 군법회의의 문제점-노천명·조경희·이인수의 판결을 중심으로」,『서강인문논총』57집,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0, 267-301쪽.
김진희, 「모윤숙과 노천명 시에 나타난 '해방'과 '전쟁': 해방이후부터 전쟁까지의 시를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28호, 한국시학회, 2010, 261-293쪽.
나보령, 「노천명의 한국전쟁기 산문 연구: 카르토그라피로서의 수기, 편지, 수필과 글쓰기 전략」, 『한국문학논총』 93호, 한국문학회, 2023, 81-117쪽.
박경자, 「노천명 시에 나타난 사슴, 고독, 장미의 상징성」, 『한국어교육연구』 3호,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5, 159-181쪽.
박연희, 「전선(戰線)의 여성 시인-'적치 하' 모윤숙과 노천명의 원체험과 시적 재현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8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3, 99-133쪽.
손미영, 「노천명 시 연구-시집 《별을 쳐다보며》를 중심으로-」, 『성신어문학』 6호, 돈암어문학회, 1994, 161-177쪽.
유태윤, 「노천명의 감옥시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74집, 한국현대문학회, 2024, 151-180쪽.
이정은, 「1950년대 노동 지배 담론과 노동자의 대응」, 『역사비평』 83호, 역사비평사, 2008, 152-175쪽.
정현경, 「웃음에 관한 미학적 성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2009, 1-207쪽.
최정기, 「해방 이후 한국전쟁까지의 형무소 실태 연구」, 『제노사이드연구』 2호,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63-93쪽.

4. 기타자료

법무부, 「교정 61주년 변천사」,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06.10.28.,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145585, 2026.07.11.

「~면」,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1999.
「발진티푸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1619.
「부산형무소 재소자 학살 사건」,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s://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5909.

Abstract

The Drama of Self-Definition in Noh Cheon-myeong's Late Literary Works
:Focusing on the Prison Experience and the Modes of Response to Power

Jang Seo-Lan(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rough Foucault's theories of power and the subject and Goffman's work, how the experientiality shaped by prison life operates in the formation of the poet's self, focusing on Noh Cheon-myeong's prison poems and her post-release writings.

For Noh Cheon-myeong, who was imprisoned on charges of pro-communist collaboratio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which had adopted anti-communism as its national policy—prison functioned as a space that produced a "subject" embodying the desires of the symbolic order. The series of mechanisms revealed in her prison poems—isolation, the defilement of the self, and the deprivation of a name—form a narrative flow that threatens the existing self and leads to the acceptance of a self defined by imprisonment.

In her works written after her release, a "subjectified" self—reinforced by anti-communist and patriotic ideologies—emerges; however, the desire to discard one's "name" and the persistent imagery of oppression reveal fissures in this "subjectification." This coexistence of the "subjectified" self and points of fracture invites us to read Noh Cheon-myeong's texts as dramas of self-definition, demonstrating that the space of prison is a site of power that simultaneously enacts oppression and production.

Key words: Noh Cheon-myeong, prison, total institution, prison literature, power, subjectification, experientiality, Michel Foucault, Erving Goffman, drama of self-definition.)

논문제출 / 2026.07.13.
심사완료 / 2026.08.06.
게재확정 / 2026.08.07.